

체계적인 자가배합사료 생산으로 사료비를 줄이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농가에서 사료비 절감에 대해
다가설 수 있는 방안중의 일환으로 자가배합 사료생산을 심각하게 검토하여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농가에서 사료를 자가배합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이 아니다.

배합사료를 사용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둘러 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가배합을 하는 농가에서는
생산에 앞서 최소한의 몇 가지 사항은 알아두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각 원재료비의 상승, 환율 불안정(3월 현재 \$당 1300 원 돌파), 등으로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축산 분야에서도 지금 많은 긴장감이 떠나지 않고 있다.

특히 양돈 분야에서는 축우쪽의 광우병에 대한 문제로 더불어 소비가 저조한 것과 많은 질병문제를 포함하여, 배합사료의 가격인상, 약품가격 인상 등으로 가쁜 숨을 몰아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그나마 상승세는

아니지만 얼마전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해주는 돈가는 다행중의 다행이다. 이런 양돈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지금 같은 때에 더욱 절실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양돈 농가의 생산비 절감이라는 단어 뒤에 바로 떠오르는 것은 사료비의 절감일 것이다. 양돈 농가의 생산비중 60%-70%가 사료비인 것을 감안할 때 포인트를 여기에

김 세 호 소장
(주)소마인터내셔널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무작정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생산성은 고려하지 않고 농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거나 섞어서 먹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국내 전체의 원료비용의 상승을 농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포기하고 고 사료 값 시대에 접어든 지금의 배합사료를 전단계 급이 하려면 일부 배합사료 회사들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사료비가 절감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것이 사실이다.

배합사료의 가격이 오르기 전 가격에 지금의 돈가 정도라면 어떻게 버티어는 보겠지만 현재는 전체적인 생산비로 보아 돼지 출하시 두 당 일정액씩 손해를 보고 있는 곳도 있다. 지금 같아서 양돈을 하고 싶지 않다. 새로운 다른 것을 찾고싶다 등 양돈농가의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지만 이 문제가 포기한다고 하여 쉽게 포기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을 찾는 다하여 여태껏 정



▲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어떤 단계의 돼지에게 어떻게 급이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을 다해온 사업을 그만두고 쉽게 새 일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마음처럼 쉬운 일인 것이 아님을 알고 들을 때 그만큼 마음이 답답하여 하는 소리인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양돈농가가 생존하려면 분명히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버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농가에서 사료비 절감에 대해 다가설 수 있는 방안중의 일환으로 자가배합 사료생산을 심각하게 검토하여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까지 많은

농가들이 자가배합을 위해 원료들을 확보하고, 기계시스템을 마련하여, 각각의 원료들로 배합비를 구성해서 자가배합을 시도했었고 지금까지 생산중인 농가도 많이 있다. 그러나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여 포기를 한곳도 적지 않았다. 포기를 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기존 배합사료를 급이할 때와 비교하여 생산성적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또한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사항들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자가배합을 하

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농가에서 사료를 자가배합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이 아니다. 배합사료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둘러 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가배합을 하는 농가에서는 생산에 앞서 최소한의 몇 가지 사항은 알아두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어떤 단계의 돼지에게 어떻게 급이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가배합 사료를 생산하던 중 각각의 원료 공급이 중단될 시 어떠한 다른 원료들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배합비를 제공한 곳과 의논해야 한다.

셋째 나는 어떤 저렴한 원료들을 주위에서 가능한 많이 구할 수 있는지? 즉 원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이 내 주위에 몇 곳이나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배합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 원료는 많이 사용되었고 왜? 이 원료는 적게 사용되었는지?

최소한 이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전체적인 면에서 사료비가 절감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배합사료에 비하여 자칫 영양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 자가배합 사료를 급이 하면서도 좋은 생산성을 창출하고 사료비의 절감도 더 붙여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한번 더 움직여서 각 단계의 돼지에게 급이 되는 사료에서의 허실을 막아야 한다. 현재 많은 자가배합을 하는 농가들이 선택하여 급이 하고 있는 방식은 육성돈 전기의 사료부터 출하 때까지의 사료를 나누어 생산하여 급이 하지 않고 한 품목으로 생산하여 계속해서 같은 영양소의 사료를 급이하여 출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생산성과 사료비 절감 양쪽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상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겠지만 많은 인력이 소모되므로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육성전기(40~70kg)사료와 육성후기(70~110kg)사료 정

도로 나누어 사료를 생산해서 급이 하는 것이 현행 대로의 일관된 한 품목 생산 급이 방식보다 사료비의 절감과 생산성의 결과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약간의 시간과 인력이 필요로 하겠지만 이 같이 2단계로 나누어서 급이 한다면, 육성전기(40~70kg) 단계와 육성후기(70~110kg)에 각각 알맞은 영양을 제공할 수 있어 사료의 허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육성후기(40~70kg)의 단계에서는 정육보다 지방층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육성전기(40~70kg)에 비해 낮은 영양의 사료를 급이 하여 과다한 등 지방의 축적도 막을 수 있고, 더불어 사료의 원가도 낮게 책정되게끔 배합비를 구성할 수가 있다.

또 육성전기(40~70kg)사료 대비 육성후기(70~110kg)의 사료단가는 평균적으로 15원~20원/kg 정도를 낮출 수 있고, 육성 전단계의 사료 급이 비율을 볼 때 육성전기(40~70kg)때 보다 육성후기(70~110kg)에 급이 되는 사료의 양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도 많은 사

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한 단계의 사료를 더 생
산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이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에서의
비용적인 면 보다 많은 이익
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료비의 절감을
위하여 주위에서 비교적 쉽
게 구할 수 있는 각종 부산
물 등을 이용하여 40kg 이하
의 돼지와 모돈의 사료에 까
지 접목을 시키려는 방법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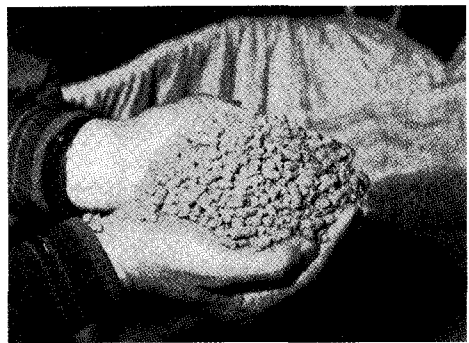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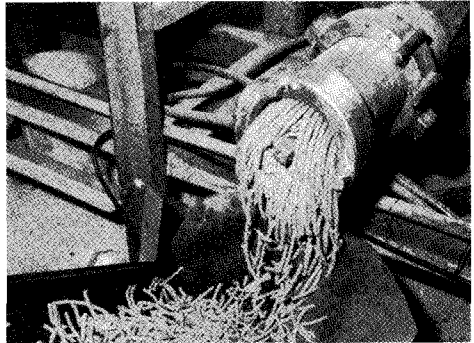
왜냐하면 약40kg 이하의
돼지의 경우에는 소량의 부
산물만을 사용하여 접목 시
킬 수도 있겠지만 이 단계의
돼지는 아직 어린 돼지이고,
육성돈 단계에 비해 조그만
영양소 불균형, 질병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성장면에 대
하여 매우 민감한 단계이므
로 영양의 밸런스 역시 육성
돈 단계에 비해서 더욱 더
중요한 사항일 수 밖에 없
다.

같은 맥락에서 각 종 부
산물의 성분을 100% 알 수
없음으로 인해 만약 이 부분
에서 영양소 조성이 약간 낮

게 설계된 사료를
급이 하게 된다면
저 영양공급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 성장
정체 등이 바로
폐사나 위축돈 발
생 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물
론 모돈은 번식성
적과 직결되므로
더 말할 나위도 없
고, 결국 이는 소위
말하는 앞으로 남
고 뒤로 손해를 보
는 장사일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가능한 완
전 배합사료를 급이 하는 것
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이 부
분에서 자가배합을 해야 한
다면 배합사료 가격 대비 사
료비를 소폭 낮추는 방향에
서 영양 성분이 다소 불분명
한 원료들은 제외하고 가능
하면 순수 곡물을 이용한 배
합비를 구성하여 급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내에서 농가가 사료원
료를 공급받는 루트를 볼 때
원료를 구하기가 쉽지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
므로 농가에서 자가배합을
하면서 원료를 계속해서 안



정적으로 공급 받는 것도 어
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선불을 준다 해도 원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구할 수는 있
으나 원료가격이 너무 비싸
거나 갑자기 비싸져서 농가
에서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
도 있다. 그리고 원료를 농
가까지 운송하는 문제에 있
어서는 원료를 공급하는 곳
에서 운송 문제 등으로 인해
1회 출고하는 물량을 아예
높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소
규모 농가에서는 적량만 공
급 받고 싶어도 하는 수없이
원료를 더 받아야만 하는 불

편함도 있다.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공급 받은 원료는 농장의 보관 장소가 협소하므로 한쪽에 쌓아 두고 방치하여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사용할 때에는 보관상의 잘못으로 변질되어 있기가 쉽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원료의 공급처를 확보해 놓고 그때 마다 원료를 대체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빈번히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아님으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또 출고량 문제도 원료의 공급처와 잘 상의하여 농가에서 직접 운송을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운다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가를 위하여 정부의 기관을 비롯, 기타 축산농가와 관련된 여러 단체등에서 보다 쉽게 이런 원료들을 축산 농가에서

구할 수 있도록, 공급문제를 검토해준다면 양돈농가를 포함하여 많은 자가배합을 하는 축산농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료원료의 공급처를 가급적 많이 알아두는 것은 자가배합을 시작하고 나면 많은 도움을 주므로 평상시에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료의 원료가 될 만한 원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았을 때에는 그 아이템이 어떤 것이든 상관할 것이 없다. 그 원료가 내 배합비에 사용될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배합비를 구성하면서 골라서 추려내면 될 것이다.

결국 그런 평상시의 노력이 곧 사료의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소지가 되므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사료를 구성하고있는 영양소를 크게 구분하면 단백질, 에너지, 아미노산, 광물

질, 비타민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는데 이는 원료들을 선정 할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료의 원료에도 단백질 원으로 사용되는 원료가 있고,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는 원료가 있으며, 각각 비타민이나 광물질의 구성을 보조해 주는 원료들이 있다. (표 1 참조)

그러므로 원료 선택시 각각의 영양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 배합비에 사용될 원료가 (표 1)의 구분에 최소 1~2가지씩 정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혹 배합비를 의뢰할 때 에너지 원료만을 가지고, 또는 단백질 원료만을 가지고 배합비를 의뢰하는 것을 보는데 한가지의 영양소 조성에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는 전체적인 영양밸런스를 맞추어 배합비를 구성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원료를 선정할 때 그 아이템이 어떤 것이냐는 상관없이 여러 선정된 원료에 단백질과 에너지 원료에 각각 해당되는 원료가 따로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합비를 구성할 때 곡물원료를 포함하여

〈표 1〉 영양소 공급 원료의 종류

구 분	원 료 명
단백질원료	대두박 포함 각종 박류, 어분, 육골분, 도계부산물등
에너지원료	옥수수, 미강, 우지 등
광물질, 비타민보조원료	각종 비타민제제, 미네랄제제, 종합프리믹스제제
기타	아미노산제제 등

여러 원료를 조합해놓고 영양소 조성을 보면 곡물이나 부산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양만으로는 요구량에 대비하여 비타민과 광물질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족하므로 인위적으로 비타민 및 광물질 제제를 사용하여 요구량을 맞춰 주어야 하는데 배합사료 공장에서도 사료 배합시 곡물과 부산물 이외에 십여 가지가 넘는 비타민, 미네랄 프리믹스 제제나 종합 프리믹스 제제를 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가배합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런 사항들은 자가배합을 하는 농가에서도 알고 있어야 배합비의 구성을 검토할 때와 의논이 이루어질 때 용이하다. 그리고 저렴한 원료가 새롭게 구입 될 수 있다면 그때마다 새로운 원료가 배합비에 이용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서 요구량 대비 영양소 수준은 유지하면서 사료비를 더 절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합비를 제공한 곳과 의논 해야 한다.

같은 원료라 해도 지역과 원료 공급처에 따라 구입가격이 많이 틀릴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자가배합 농가

와도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일 것이다.

원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이 정해지면 전문적인 자료나 지식을 토대로 배합비를 제공해줄 곳을 찾아야 하는데 요즈음은 배합비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곳도 있으므로 그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합비를 제공받지 못하는 컨설팅 비용이 결과적으로 사료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원래의 사료 생산비용에 추가비용이 많이 보태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런 곳을 알지 못하거나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필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좋다. 그런 곳을 소개시켜 주거나 원래의 가격에 컨설팅 비용이 보태지지 않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배합비를 제공받으면 그 것이 바로 내 돼지에게 접목할 배합비이므로 면밀히 검토하고 공급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여 어떠

한 이유로 배합비가 구성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알 필요가 있다. 이는 혹시라도 사료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더불어 사료의 배합비는 되도록 단순배합으로 구성된 것이 바람직한데, 이 역시 사료의 배합비가 복잡할 때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배합비를 제공한 곳은 수시로 배합비를 제공한 농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사료에 대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며, 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의문사항이라도 생긴다면 수시로 문의하여 의문점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검토하여 자가배합을 시작한다면 농가마다 다르겠지만 현재의 사료비용과 비교하여 약 25%-35%가량은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사료비를 떨어뜨리는 것에만 치중하고 돼지의 생산성적으로는 소홀히 하게 되어 손해를 보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양돈**